

2013 3.10 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 여호수아기 5,9 ~10, 10-12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축제를 지냈다.>

제 2 독서 : 코린토 2 서 5,17-21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 : 루카 15,1-3.11 ~32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베이크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만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땅에 들어가 **새로운 땅**에서 첫소출을 해서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소출을 먹은 그 다음날 만나가 밟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백성들을 이끌어주셨던 하느님은 이제는 백성들이 새땅에서 자력으로 스스로 먹고 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제 2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다음주에 저는 우리교구내 종신부제후보자들의 교육을맡게 되어있는데 주제가 바오로서간이기때문에 그 덕택으로 요즈음 바오로서간문 14 권을 다시 새롭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에페소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한믿음안에서 한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서로 다른 이민족이 없습니다. 오직 단하나 하느님의 자녀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새로운 가르침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인, 한국인, 멕시코인등등의 구별은 오직 인간의 잣대입니다. Unity of Diversity 즉 “다양성 안에서 하나로!” 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세례성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서로 다른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일상의 삶안에서 이웃 민족들을 내민족과 같이 하나로 여기고 있는지요? 우리는 그래야만 올바르게 하느님의 자녀로 살수 있습니다. 구분, 차별은 마귀의 작난입니다. 유럽에 가면 사람들을 얼굴 색깔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우월민족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민족 역시 인종 차별을 많이 하며 살고 있는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은 업신 여기면서 백인들은 우리보다 더 위라고 그들을 어려워 하는모습을 종종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하느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옛날 우리의 잘못된사고 방식을 계속 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도달할수 있는 거리를 40 년이나 걸려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도,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날의 사고 방식들을 새롭게 정화시키기위함 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자생활을 40 년, 60 년,또는 80 년을 하였어도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새롭게 정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망나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망나니의 처지에 놓였을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게 될런지요? 많은 사람들이 강물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목을 매달기도 합니다. 이유는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죽고 싶어서, 요즘은 연탄불을 피워놓고 죽기도 한다고 한국 뉴스에 보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작은 아들은 방탕생활을 하며 아버지의 돈을 탕진하고 탕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자존심을 죽이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더이상 아들의 신분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죄를 받아들이며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종노릇이라도 하려고 아버지의 집을 향합니다. 이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 하더라도 아버지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돌아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또한 복음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화난 표정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는 당당하게 따져댁니다. **“저는 여러해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번도 어기지 않았습디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마리 주신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털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이에 아버지는 내것이 다 네것이 아니냐고 타이르십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망나니같은 처지가 되었을때에 그제야 제 정신이 들어 아버지께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오직 자기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자신들은 작은 아들과 같이 많은죄, 육신의 죄 마음의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혹시 큰아들과 같이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 지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우리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할것입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내마음안에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께서도 움직이지시지를 못합니다. 하느님은 강제로 우리를 움직이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고 남을 용서하며 가진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기쁘게 살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와 주십시오 이 미사중에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